

“봉사활동은 안전한 복지사회 만드는 출발점”

●유영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광주후원회장

23년째 지역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학습비 지원 등 후원 “나눔문화 확산시켜 어린이가 희망 키우는 사회 만들고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 내 소외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23년째 아낌없는 후원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가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유영태(65·사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후원회(이하 광주후원회) 회장이다.

유 회장의 봉사활동은 1998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강단에 오르면서 시작했다.

유 회장은 당시 ‘내 삶은 부모님과 사회의 보살핌을 통해 누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사회적으로 소년·소녀가장 문제가 크게 떠오르자 다니던 성당을 찾아가 도와줄 이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성당을 통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다 우연한 계기로 초록우산과 연을 맺게 됐다.

유 회장은 “성당에서 한 학생을 소개받아 후원과 도움을 줬지만, 이후 불량배에게 돈을 갈취 당하거나 돈으로 인해 폭행·억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의 봉사나 나눔의 쓰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며 “전문 기관을 통해 아이들을 돕고자 찾던 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알게 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200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첫 후원을 시작으로 2006년 광주후원회에 가입, 23년째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주 환경 개선 사업과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후원 및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후원회는 어린이를 돕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후원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아동 이슈 발굴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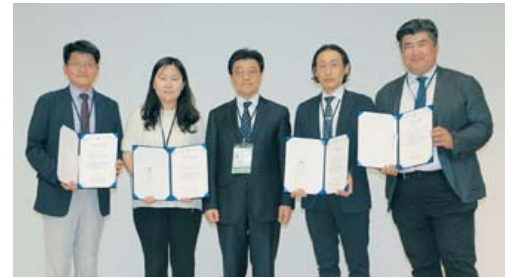
이같은 선행과 봉사·나눔을 인정받은 유 회장은 2020년 광주후원회 회장으로 당선됐고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 회장은 “여러 활동을 하지만 후원자 모집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사람마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에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흔쾌히 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회장은 봉사활동을 하며 직접 겪은 아이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주변에 알려 독려한 결과 매년 꾸준히 후원자를 모집해 지역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넓혀가고 있다.

유 회장은 “자본주의 생리상 빈부 격차 발생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간격은 민간분야인 봉사활동을 통해 메꿔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들을 방지하게 되면 사회가 더욱 어두운 길로 갈 수 있어 봉사활동은 이를 방지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도 같다”고 소회했다.

이어 “어린이가 세상을 볼 때 빛이 프리즘 통과 시 여러가지 색깔로 표현되듯 희망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봉사활동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안전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성학기자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 대한평형의학회 ‘우수 논문상’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이비인후과 조성일·남기성 교수와 백원용 전공의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평형의학회 제44차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평형의학회는 평형장애와 어지럼증 진료, 연구·교육, 학술교류 및 학문적 발전을 목표로 각종 전정기능 검사에 신의료기술 적용 및 맞춤형 진정운동의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회이다.

이비인후과 조성일 교수 연구팀은 대한평형의학회에 ‘일측 만성 중이질환 환자에서 비디오 두부 총동검사를 이용한 전정 안구 반사의 평가’란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해당 논문에는 ‘만성중이염 환자에서 비디오 두부 총동검사를 바탕으로 환자의 전정기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반고리관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돼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성일 교수는 이비인후과 과장을, 남기성 교수는 임상교수로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예방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오복기자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이 22일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총장은 이날 총장실에서 광주여대 11기 홍보대사 Q-Leader와 함께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퇴출’에 대한 국민 의지를 널리 확

산시키기 위해 시작했으며, 원로배우 최불암 씨를 필두로 올해 연말까지 릴레이로 진행된다.

이선재 총장은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 퇴치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 마음과 정신이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보훈가족 물품 전달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공사) 후원 ‘보훈가족 사랑나눔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어려운 보훈가족들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후원품은 무의탁 독거세대 등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족에

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앞으로도 광주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부로 높인 위상만큼 보훈가족이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전남도, 순천시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 개최

전남도는 22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보육정책 이해를 높이고 유보통합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 대응을 위한 ‘2023 전남도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노관규 순천시장과 전남 어린이집 원장 5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 본부장이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유보통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정부 보육정책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행복가득, 웃음가득, 아이들과 함께하

는 전남보육’을 구호로 한 개회 선언에 이어, 본 행사에선 보육 발전에 공로가 큰 어린이집 원장 31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 전남 국립과과대학 유지 성명 발표와 퍼포먼스를 통해 아이들의 의료기본권과 교육권 보장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간을 7월부터 2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며 “원장들이 조리원을 겸하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 여성가족지원센터 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최근 광주남부지소 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에서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기금 전달식에서 오양민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명예회장은 대표로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200만원 상당의 의류와 기금을 전달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법무보호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오복기자



정명옥 여성가족지원위원회장은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법무보호사업의 발전과 범죄 없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든든한 동행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담양경찰, 반부패 청렴 인권역량 강화 워크숍

담양경찰서는 “최근 담양 드문드호텔 세미나실에서 자치사무 경찰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인권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담양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임성택 경감을 비롯한 자치사무 경찰이 참석했으며 반부패 청렴 실천과 인권 옹호 경찰로서의 책무를 다짐했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아로마 향기를 통해 청렴·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송희 담양경찰서장은 “청렴과 인권은 국



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청렴은 물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담양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목포농협-서진도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목포농협은 22일 “전날 목포시청에서 서진도농협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탁식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고영민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목포농협과 서진도농협은 조합과 지자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 농협 임직원들이 모여 500만원의 상호기부금을 실천했다.

박정수 목포농협조합장은 “목포농협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 및 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양경찰, 어린이교통안전 골든벨 성료

광양경찰서는 “최근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광양 녹색어머니연합회 주최로 ‘도전!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전!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광양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기획하고 광양경찰서가 후원하는 행사로, 관내 초등학교 150여명을 초청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일상생활 상식을 O·X,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문제로 제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재봉 광양경찰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장, 김성수 광양시청 교통과장 등이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봉 서장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교통 안전 상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기자

인사

- 광주시교육청 ◇4급 승진 ▲김정오 정척국 안전총괄과장
- ▲문명수 광주중앙도서관장
- ◇6급 승진 ▲김옥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문헌정보과장
- ◇4급 진보 ▲노정환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추근 광주시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정연 광주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결혼

- ▲김용진·김인숙씨 장남 윤중(동명동 한식 돌에 대표), 허박병만·백미량씨 삼녀 지향양=7월1일(토) 오전 11시 광주 라페스타 2층 엘루체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2(농성동 333-57), (06-21-366-7766, 010-3646-9100).
- ▲정명근·최운선씨 장남 일형(경기 파주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신도윤·정점옥씨 장녀 유진양=7월1일(토) 오후 5시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5층 세인트그라이스홀,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신도림동 427-3), (02)2162-2100, 010-4277-5569.